

표현의 자유 논란



윤 위 중 의
잠시 쉼표

지난 9일 국회에서는 의원회관에 전시될 예정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풍자 그림 80여점을 국회사무처가 전격 철거한 일이 발생했다. 이번 전시는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와 굿바이전시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12명이 주관했다고 한다.

이를 놓고 전시를 주관한 의원 측은 “국회가 표현의 자유를 짓밟았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측은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대선 불복의 헌법정신 파괴를 자행하려는 민주당 세력을 강력 규탄한다”며 맞받았다.

지난해 10월경, ‘윤석열차’를 놓고 한바탕 논란이 됐던 표현의 자유가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표현의 자유란 헌법에 정해진 기본권의 하나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억압이나 검열 없이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헌법 2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UN도 ‘모든 사람의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표현에 대해 자유를 보장하는 건 아니다. 헌법 21조 4항에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고 돼 있고, 헌법 제37조에는 국가안 정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아, 표현의 자유에 대해 조심스러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의 모든 표현에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파시즘이나 독재, 각종 차별, 인신매매, 국가전복 등을 주장하는 표현에도 자유를 보장해주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물론, 그 표현의 자유를 누가 판단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있다. 표현의 자유를 판단하는 주체는 당연히 민주주의의 주권을 갖고 있는 주체, 즉 국민이 해야 한다. 그 국민이 누구냐는 게 논란거리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이번 전시가 논란이 되는 것은 그림 자체가 아니라 누가 어디에서 했느냐를 봐야 한다. 국민의힘 주장처럼 ‘민주당이 대선에 불복해서 대통령을 비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장할 수 없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거대 야당이 재야단체 뒤에 숨어서 전시 장소를 국회로 택한 것이 문제’라고 본다.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 전시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 정치의 심장부인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야당 진영이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림을 전시했기 때문에 반대 진영에서 ‘정치적 의도가 있을 것’이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 행사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에블린 비트리스 홀이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의 사상을 요약하며 ‘볼테르의 친구들’에서 쓴 것처럼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의 말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죽을 힘을 다해 싸우겠다”고 한 게 어떤 의미인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정치경제부장 yhj@metroseoul.co.kr

선물이란, 포장이란



김 서 현
(유통&라이프부)

선물이란, 받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물건이다. 받으면 기쁜 게 선물이지만 검은 비닐 봉지에 담아 주면 주는 이의 성의와 의도가 의심받는다. 허접한 포장에 선물이 되려 망가지기도 한다. 사람들은 선물을 보호하고 받는 이에게 어떤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포장에도 정성을 기울인다.

문제는 포장에 너무 큰 정성을 쏟으면 받는 사람이 기쁠지 몰라도 환경에는 아니라는 것이다. 모든 종류의 맨들거리는 코팅지는 재활용이 불가능해 일방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롯데마트가 과감히 매주

발행하던 종이전단 운영을 중지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해 9월 추석 명절, 백화점 선물세트 매대는 친환경을 홍보한 것이 무색했다. 각고의 노력으로 도입한 다회용 보냉백 등이 무색하게 친환경적인 종이 완충재와 상자를 이용해도 과일과 고기는 하나하나 비닐 포장과 필름지에 싸여있었다.

그 결과 한동안 백화점업계에는 ‘그린 위상’ 논란이 일어났다. 백화점 업체들은 제각각 여러 전문가 그룹과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한다. 상품을 보호하는 것 또한 선물 포장에 해내야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당장 모두 바꾸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남을 기쁘게 하려고, 리본을 풀며 기대하는 얼굴을 보려고 생각없이 썼던 포장지와 리본끈이 기후위기를 앞당기고 있었다

니! 알고보니 화가 나서 공격하는 글을 잔뜩 쓰려 했다.

그런데, 문득 최고급 꽃감 30개를 포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홀로 생각하는 데, 플라스틱 상자에 알알이 담은 것 외엔 도통 떠오르지 않는다. 도리어 문득 이렇게나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환경을 망가뜨리는 일에 익숙했고, 다른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없구나 싶어 반성하게 된다.

다양한 기사와 전문가들은 유통업계의 변화를 촉구하면서도 동시에 선물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특정한 물건을 주기 보다는 전자 상품권을 주는 식으로 구태여 선물 포장이 필요없도록 바뀌어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기업에서 새로운 대안을 연구해 내놓기까지는 시간이 걸릴테니 그래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얼마나 기다리면 될까?

/seoh@

오늘의 운세 1월 12일 (음 12월 21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중요. 48년생 남의 이목에 지나치게 신경이 쓰인다. 60년생 일을 하던 중에도 미흡한 점이 있으면 바로 중지. 72년생 벗어나니 새로운 관심거리가 생긴다. 84년생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살피자.



37년생 당장은 성과가 없어도 시작하면 좋다. 49년생 작은 것은 내어주고 큰 것을 노려라. 61년생 분실수가 있으니 사람 많은 곳은 피하라. 73년생 들떠있던 거품은 사라지고 부담만 남는다. 85년생 내가 책임질 일이 생긴다.



38년생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하루. 50년생 결과를 재촉하지 말고 과정을 살피는 것이 중요. 62년생 알아도 모르는 척 지나가기. 74년생 멀리서 구하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찾아라. 86년생 보람 있는 일을 하니 행운이 가까이.



39년생 시간이 돈이니 시간활용을 잘 하기. 51년생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조용히. 63년생 쉽게 얻은 재물은 쉽게 나간다. 75년생 상대를 배려하면 내가 존중 받는다. 87년생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말고 현실을 인식.



40년생 기대만큼 큰 성과가 있다. 52년생 천하를 다 얻은 듯 즐거운 하루. 64년생 심한 운동으로 근육에 무리가 갈 수 있다. 76년생 표정관리를 잘해야 적을 만들지 않는다. 88년생 기다리던 곳에서 좋은 소식이 오니 일을 시작하자.



41년생 노력이 발휘되고 목표가 달성되는 날. 53년생 가족의 화목이 우선이니 배우자에게 더 신경 쓰자. 65년생 심 내 목은 채움이 해소. 77년생 받기보다 베푸는 하루가 된다. 89년생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게 마련인데.



42년생 주변의 박씨가 도움을 준다. 54년생 이기적인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게 된다. 66년생 오늘 할 일은 오늘 끝내자. 78년생 충동적인 소비를 자제하고 내일을 위해 저축을. 90년생 신에게 무조건 달라고 비는 것이 기도도 아니다.



43년생 재혼 자에게 먼저 친한하고 이해하라. 55년생 비가와도 밖에 나가지 않으면 우산은 필요 없다. 67년생 마음만 바쁘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 79년생 선배에게 도움을 구하면 해결책이 보임. 91년생 주변이 바쁘니 외출자제.



44년생 상대가 못마땅해도 오늘은 너그러이 넘어가자. 56년생 오후 7시 지나면서 차량사고에 주의해야. 68년생 인수 운이 있으니 매매거래가 순조롭다. 80년생 원하던 영입문서가 실제로 계약된다. 92년생 예상보다 지출이 많이 될 수.



45년생 지나친 자존감으로 좋은 기회를 놓친다. 57년생 새로운 만남은 많은 것을 가져온다. 69년생 하늘도 맑고 푸르니 여행을 떠나보자. 81년생 아차피 할 일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93년생 논쟁보다는 타협이 해결책이니 언쟁하지 마라.



46년생 결도양으로 상대를 판단하지 마라. 58년생 자신의 능력으로 못사람들 위에 군림하게 된다. 70년생 부적절한 이성관계로 망신수가 있다. 82년생 사람을 가리지 말고 만나는 것이 좋다. 94년생 음주나 원행을 금하고 건강관리에 신경.



47년생 진취적인 행동이 자녀들의 본보기가 된다. 59년생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겨라. 71년생 신규 투자할 곳이 나타난다. 83년생 남에게 이해를 바라지 말고 적극적으로 어필을. 95년생 산다는 것이 축복일까 건강하다면 최고의 축복으로.



김상회의四季 재복의 크기

필자의 지인인 P씨는 근 이십년 전 상담을 온 후 계속 인연을 맺어왔다. 그는 금융계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재운에는 증권투자가 맞지 않음을 처음 상담 시부터 주의를 주었다. 그의 재물 방향은 토(土)로써 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주거부동산에 재물을 묻어두면 분명 효자노릇을 할 것이라고. 60년 음력5월생 경자년 신사월 기미일(庚子辛巳 己未)사주로 전형적 습니오옥(濕泥汚玉; 참견이 심하여 손해발생)이다. 月の사중 경금(己中庚金)이 투간되어 식상이 왕하니 뜯구름 쫓을 수가 있어서 재물이 흩어진다.

주식은 편재성으로 과하면 불급이라 P씨의 사주로 보아서는 득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몇년전 필자를 찾아와서는 아파트를 중부세 폭탄으로 인해 도저히 부담이 돼서 처분을 하겠다는 것이다. 필자는 참은 김에 조금만 견뎌보라고 말했었다. 무엇보다 P씨에게는 주식투자가 맞지 않고 그래도 부동산 유지는 최소한 유지한 보람을 있게 할 것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P씨는 급기야 처분을 하고 말았다. 그렇게 팔고 나자마자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다들 아시다시피 가파르게 올랐다.

팔고남은 돈으로 한 주식투자는 지금 엄청나게 폭락을 해서 남은 돈은 날아간 셈이다. 2023년 1월 현재는 아파트시세가 없다 해도 P씨가 소유했던 아파트는 대형아파트이기에 월급으로 중부세 내는 것이 너무 부담이 되어 양도세 중과 일시 배제 시책이 나오자 팔지 않을 수가 없었다며 속상해 한다. 무엇보다 당시 개미투자자들의 엄청난 주식투자 열풍에 금융계에 있는 자신이 투자를 할 수가 없었다. 재물문의 정성은 자기 사주를 거스르지 말라는 것이다. 자신에게 허용된 재물의 방향을 무시하면 습니오옥되어 물처럼 흘러버리거나 모래알처럼 빠져나간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신박한 논리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의 두뇌퍼즐
사무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도쿠66 | 10,000원

| | | | | | |
|---|---|---|---|---|---|
| | | 5 | 6 | | |
| | 8 | | | | 2 |
| | | | 3 | | 8 |
| 1 | | 7 | | | 4 |
| | 4 | | | 5 | 8 |
| 6 | | | | | 7 |
| | | | 5 | | |
| | | 3 | 8 | | |
| | 5 | | 2 | 9 | |
| | | | | | 3 |

| | | | | | | |
|---|---|---|---|---|---|---|
| | | | | 7 | 5 | 4 |
| | | | | | | 9 |
| | | 1 | | 8 | | |
| | | | 4 | | | |
| | | | | 3 | 9 | |
| 1 | 5 | 6 | | | | 7 |
| 8 | | | | 5 | 2 | 4 |
| 7 | | | | | | |
| | 1 | | | 4 | 7 | |

정답

| | | | | | | | |
|---|---|---|---|---|---|---|---|
| 8 | 2 | 6 | 7 | 9 | 1 | 5 | 4 |
| 5 | 1 | 2 | 4 | 8 | 3 | 9 | 6 |
| 9 | 6 | 4 | 3 | 5 | 1 | 2 | 8 |
| 1 | 2 | 1 | 9 | 4 | 8 | 6 | 9 |
| 8 | 9 | 1 | 6 | 2 | 4 | 3 | 5 |
| 6 | 4 | 3 | 8 | 9 | 1 | 5 | 2 |
| 4 | 8 | 2 | 3 | 5 | 6 | 9 | 1 |
| 2 | 9 | 1 | 4 | 4 | 6 | 8 | 3 |
| 1 | 3 | 6 | 9 | 8 | 5 | 2 | 7 |

| | | | | | | | |
|---|---|---|---|---|---|---|---|
| 8 | 6 | 2 | 4 | 3 | 9 | 1 | 5 |
| 3 | 5 | 1 | 9 | 8 | 6 | 2 | 4 |
| 4 | 9 | 2 | 1 | 9 | 4 | 6 | 8 |
| 2 | 3 | 4 | 6 | 9 | 8 | 5 | 1 |
| 1 | 2 | 6 | 3 | 2 | 4 | 5 | 8 |
| 5 | 8 | 9 | 2 | 1 | 4 | 3 | 6 |
| 2 | 1 | 3 | 8 | 6 | 9 | 1 | 5 |
| 6 | 1 | 8 | 9 | 4 | 3 | 2 | 9 |
| 9 | 4 | 9 | 2 | 2 | 1 | 8 | 6 |

고난도의 월드컵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10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210호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